

Money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은행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던 주식투자자들이 중도성형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4월말까지 총 발행규모가 6조2천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8천884억원에 비해 60%나 늘었다.

그러나 상품구조가 워낙 다양해다 상품별마다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로 돼 있어 섣뜻 가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목표수익률 달성하면 조기 상환

주식 꺼리고 예금 불만인 중도형 투자자에 인기 4월까지 6조2천억 발행...작년보다 60% 늘어

ELS 진화의 키워드는 '실현가능성' =2003년 도입 초기 나온 상품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단순한 구조였으나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다 예상보다 너무 높게 상승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축소되는 구조였다.

가 많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대신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상품들을 말한다. 특히 정해진 수익이상이 되면 수익률이 고정되거나 원금을 주는 형태로 돼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만기 시에 원금+a 또는 원금의 일정비율을 받게 된다.

주가 상승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선호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기초자산들이 6개월 뒤 85%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 수익률로 조기 상환되며 이때 기초자산들의 주가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년 뒤 80%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상환이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 졸업

현대건설이 24일 5년2개월간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의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업체간 물밑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나비 액세서리 24일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올 여름 유행할 나비모양의 액세서리를 선보이자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회사 위기때 노사는 뭉쳤다”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와 갈등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모범사례로 무분규·무교섭, 경영위기 극복, 퇴직근로자 복지, 노조의 경영활동 지원 등 4가지 유형을 들었다.

창립 80주년 맞은 유한양행 장수비결은 ‘노사 공동운명체’

유한양행이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유한양행이 걸어온 길은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한 박사의 친인척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의 차종근 사장(사진)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전 현직 최고경영자들은 모두 평사원으로 출발해 최고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다.

Table with 6 columns: Job Title (업 제 명), Department (모 집 분 야), Salary and Benefits (자격및 경력), Annual Salary (연봉(만원)), Start Date (미감일), and Contact Info (연락처). Lists various recruitment positions like '보조 여사원', '정규직 전산관리 경력사원', etc.

아파트 하자보수 1~2년 연장

빠르면 2008년부터...위생설비·마감공사 등

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내 화장실 변기·욕조·창문틀·타일 등 13개 공사항목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보다 1~2년씩 늘어났다.

국민은행, 신용대출 한도 2배 확대

1억원으로 상향...금리도 최대 0.3%P 내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100% 늘리고 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대출에 지각변동일 전망이다.



금호생명 보험여왕에 안순옥씨

금호생명(www.kumholife.co.kr 사장 박병욱)은 충남 당진 지점 안순옥(42) FP(Financial Planner·금융자산관리사)를 2006 금호대상 보험여왕으로 선정하고 24일 대전 추무체육관에서 그로회차 박삼구 회장과 계열 사장단이 참석해 시상식을 가졌다.

“통계 발표시간 변경없다”

韓銀, 통계청 변경방침에 반대 통계청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지표 발표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